



제주 품은 창작곡 초연... “음악산업 연계 고민”



관악제 ‘오늘의 창작곡’
국내 작곡가 6명 참여

울산대심포닉밴드 연주
‘불로초의 발견’ 등 첫선
“저작권 제도 마련 계획”

불로초를 찾아 먼 옛날 서귀포로 향했다는 서복의 전설이 오션지에 어른거렸다. 잔네을 맡으며 바다에서 멀지를 길어올리던 제주 어부들의 한때도 공연장에 그려졌다.



지난 9일 문예회관에서 열린 ‘오늘의 관악창작곡 공연’에서 울산심포닉밴드와 김지민 피아니스트의 협연으로 이문석 작곡 ‘멜 후리는 소리’가 초연되고 있다. 사진=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제공

지난 9일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24회를 맞는 제주국제관악제가 ‘특별 무대’로 마련한 ‘오늘의 관악창작곡 공연’이 열렸다.

이번 공연에서는 제주가 고향인 임대홍 울산대 객원교수가 지휘하는 울산대심포닉밴드의 연주로 국내 작곡가들이 만든 관악단을 위한 6곡의 창작곡이 초연됐다. 연주곡은 홍정호

의 ‘불로초의 발견(Finding the Tree of Life)’, 이승후의 ‘플레이인 룬도’(알토색소폰 앙양곡), 라에송의 ‘먼 바다의 작은 테우’, 박성균의 ‘씨 유 인 제주(See U in JEJU)’, 이문석의 ‘멜 후리는 소리’(피아노 김지민), 장석진의 ‘바람 속의 꽃(A Flower in the Blast)’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제주에 모여 가

도 등을 누비며 창작에 필요한 ‘재료’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같은 준비 끝에 창작곡을 탄생시켰다. 작곡가 대부분이 객석에 앉아 초연 장면을 지켜봤고 홍정호 작곡가는 공연장 입구에 악보집을 무료 비치하는 등 뜻 깊은 순간을 관객들과 나눴다.

관악제 조직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위촉한 관악 창작곡은 20곡이 넘는다. 조직위원회 이름으로 악보가 나온 창작곡도 있지만 일부는 해외 작곡가가 활동하는 미국 등 현지에서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철 제주국제관악제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관악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창작곡에 대한 권리 주장보다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왔고 위촉곡 계약 조건도 각기 달랐다”며 “앞으로 저작권 등 제도를 마련해 음악산업으로서 조직위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번주(8월 12일~18일) 무대 & 미술



모녀전에 나온 강정자의 ‘꽃 자리’.

모전여전... 종이 위에 번지는 행복

강정자·김선영 모녀전
문인화·수채화로 ‘뿔다’

문인화를 그리는 어머니, 수채화를 그리는 딸이 여름 전시장에서 만났다. ‘뿔다’란 제목을 내건 강정자·김선영 모녀전이다. 두 사람은 종이 위에 채색으로 ‘모전여전’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강정자)는 색색이 피어난 꽃과 열매로 행복을 염원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딸(김선영)은 바다를 이고 사는 해녀 그림 등으로 제주를 추억하고 있다.

<공연>

▶악극 ‘이수일과 심순애’=극단 가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상주단체 우수레퍼토리 공연. 8월 14일 오후 4시, 8월 15일 오후 3시와 7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22-0794.

▶24회 제주국제관악제, 14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8월 16일까지 문예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등에서 진행된다. 8월 16일 오후 8시 제주아트센터 입상자 음악회로 막을 내린다. 722-8704.

▶제18회 아라음악 콩쿠르=제주대 음악학부 주최 8월 16~17일 아라뮤즈홀. 754-4697.

▶뮤지컬 갈라쇼 ‘예화’=8월 17일 오후 5시와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010-2459-7374.

▶심희정·이우창과 함께하는 독 슈투트가르트페가소스 현악사중주 제주공연=8월 17일 오후 7시30 제주아트센터. 010-5699-4964.

▶제주항일항쟁의 빛 해월당봉

려관 뮤지컬 ‘자비, 병글은 소리’=관음자비랑합창단 주최 8월 18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4696-5172.

<전시>

▶김양수 개인전=8월 14일까지 연갤러리. 010-8704-5799.

▶새의 눈, 벌레의 눈=이지유 개인전으로 8월 15일까지 예술공간 아아. 800-9334.

▶문지숙 사진전 ‘신의 딸 서순실 심방’=8월 15일까지 예술공간 아아. 800-9334.

▶탐라서각연구회 ‘향기나는 서각풍경’=8월 15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강정자·김선영 모녀전=8월 15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제주대 미술학과 87학번 동거전 ‘만남지 32년’=8월 15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2019 제주서예문화축제=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 주최 8월 17~22일 문예회관. 710-7633.

▶작곡가 문호진의 피아노해체 음악 전시=변금운 작가와 협업으로 마련된다. 8월 17~9월 8일 성안미술관. 010-3008-7574.

▶김계환·장경희 부부 초대전=8월 20일까지 현인갤러리. 747-1500.

▶강승철 개인전 ‘용기, 존재를 밝히다’=8월 22일까지 제주용기숨미술관. 011-692-5709.

▶박선희 그릇전=8월 23일까지 아트인명도암. 727-1253.

▶권철 사진전 ‘군국주의의 망령-아스쿠니’=8월 23일까지 갤러리 ICC제주. 735-1001. 전선희기자

서른 스페니쉬 브라스, 우리도 그들처럼

국제관악제 특별 기획
창단 30주년 기념 공연
스페인 발렌시아 기반
탄탄한 관악 저변 주목

서른 살, 그들이 왔다. ‘생일 잔치’는 유쾌했다. 무대와 객석은 물론 공연장 로비까지 그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박수가 안나올까봐” 앙코르 곡으로 준비한 크리스마스 노래를 미리 연주하며 등장한 이들은 1시간 여에 걸쳐 ‘관록’의 금빛 선율을 풀어냈다.

지난 9일 저녁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창단 30주년 기념공연을 펼친 ‘스페니쉬 브라스 러 메탈’. 스페인에서 온 금관5중주단으로 1996년 나르본 국제금관5중주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일찍이 세계 정상에 올랐다.

트럼펫의 카를로스 베네토 그라우와 환조 세르나 살바도르, 호른의 마놀로 페레즈, 트롬본의 인달레시오 보넷, 튜바의 세르지오 핀사 등 다섯 남자의 내한은 2000년 이후 아홉 번째다. 종이 악보가 태블릿 PC로 바뀌는 세월로 그 중심에 제주국제관악제가 있었다.



지난 9일 세계 최정상 금관 5중주단 ‘스페니쉬 브라스 러 메탈’이 문예회관에서 30주년 기념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 제공

공연 중간중간 해설에 나선 카를로스 베네토 그라우는 “서른 번째 생일을 너무도 아름답고 놀랍게 맞이하고 있다”며 스페니쉬 브라스가 결성된 이듬해 운명을 달리한 레너드 번스타인에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본격적인 무대를 열었다. 화려한 기교와 리듬감으로 연주를 이어간 이들은 연이은 스페인음악 3곡으로 마지막을 채웠다.

이날 공연에는 스페니쉬 브라스의 탄생 기반이 된 발렌시아 지역의 관악단 ‘리라 카스테요네라’ 멤버들이 찾았다. 발렌시아는 축구선수 이강인

이 뛰고 있는 구단 이름으로 낮익은 지명이다. 스페니쉬 브라스는 이 공연이 ‘홈타운 밴드’를 위한 특별 연주라고 소개하며 발렌시아 관악단원들과 더불어 무대를 즐겼다.

이들의 존재는 제주 관악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 제주국제관악제 개막 전 현을생 조직위원장 등과 동행해 스페인 발렌시아 부늘에서 열린 세계관악협회 관악제를 찾았던 재독 관악인 윤준현씨는 “발렌시아 관악 인구가 4만에 달하더라”며 “스페니쉬 브라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팀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영상문화진흥원 리모델링 오늘부터 첨단로 이전 업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1층(제주시 첨단로 213-65)으로 임시 이전한다. 이전 예정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건물은 1996년 제주민속관광라운지로 준공됐다. 2006년 제주영상위원회 건물로 써오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제주도에서 관리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행되는 이번 공사는 2020년 완료를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된다. 올해는 건물 외부 누수 보강, 제주 콘텐츠코리아랩(지하층 별관) 구축 공사가 실시되고 2020년에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1~2층 공간 재배치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이 공사를 통해 창작자와 도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형 시설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며 “임시 이전하는 공간에서는 지역민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사업, 행정업무 등이 종전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제주 토종 글로벌
나눔에너지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도 토종기업 나눔에너지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064-745-0420 FAX.070-8812-0420